

갤러리 팔조, 정병현 'a.INCLINATION'展...8월 5일까지

윤황인옥 | 승인 2023.07.02 21:40

“타투 바늘로 오합지 뜯어 올리며 실존적 갈등 해소”

불완전한 자신→불완전한 인간 확장

뜯은 면·뜯지 않은 면 사이 균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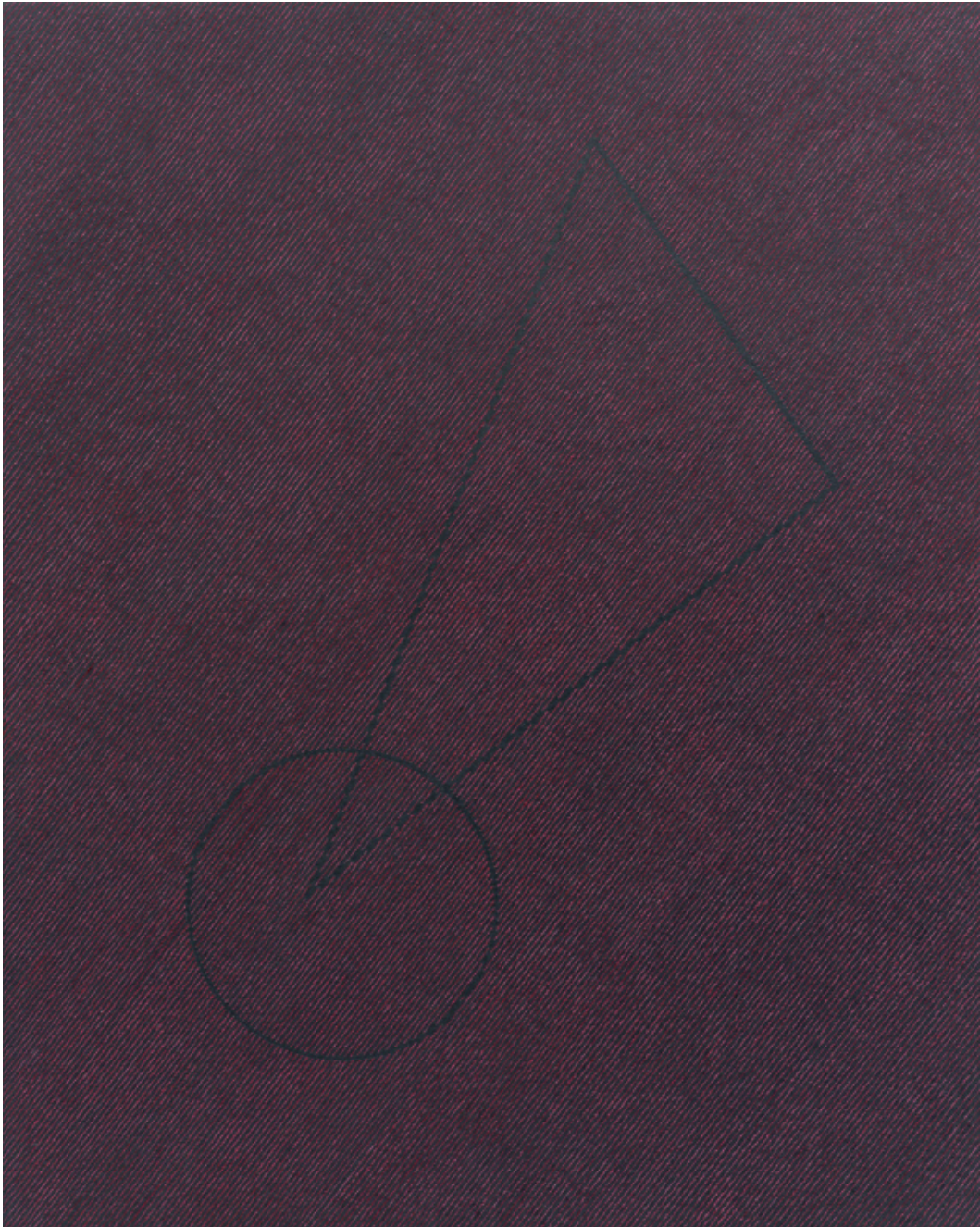
바늘길 따라가면 보이는 다양한 도형

“균형 잡고 살고자 하는 인간 표현

각도 따라 다양한 질감·기운 선사”



정병현 작 'Ambiguous Inclination'



정병현 작 'Ambiguous Inclination' 갤러리팔조 제공

소금은 물에 녹으면서 효용 가치를 증명하고, 햇빛은 찬란할수록 환호를 받는다. 전자는 숨기고, 후자는 드러낼 때 존재감에 물이 한껏 오른다. 그러나 숨김과 드러남은 상호의존적인관계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는 않다. 하나의 사물에 양립하다 조건이 맞으면 활성화나비활성화로 전환된다.

활성화와 비활성화의 기준은 효용성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소금을 예로 들면 소금의 속성인 짠맛이 기준이 되면 녹은 상태가 활성화된 상태가 된다. 녹은 상태는 드러남이고, 짠맛이 발현되기 이전인 결정체의 상태는 숨김이 된다. 전자는 활성화, 후자는 비활성화 상태다.활성화나 비활성화는 인간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숨김과 드러남은 둘 모두 동일한 무게로 존재한다.

음이 없으면 양이 존재할 수 없듯, 숨김이 없으면 드러남 또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는기준이 정해졌을 때다.

정병현 작가에게 세상은 드러남과 숨김의 이중주로 다가온다. 그의 모든 화면에는 숨김과드러남이 교차하고 그 두 현상의 공존을 통해 보다 완전한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자염원한다. 우리 주변에서 공기처럼 존재

하던 숨김과 드러남의 이치를 그가 명징하게 깨달은시기는 10여년 전,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었을 때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는질문이 시작됐고, 자신을 옥죄던 불완전성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쑥 불쑥 튀어 올랐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나고 누구나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는 유독 저의 불완전함만 크게 보였어요. 어느 시기에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불완전성이야말로 저의 본질이라는 자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희망하는 일들이 곧잘 현실의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때마다 불완전한 자신을 자책했다. 내면에 상처들이 쌓여갈수록 불완전성에 대한 불안은 깊어갔고, 마침내 그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아갔다. “불완전성”이라는 주제는 10여년전부터 저의 의식을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죠.”

‘불완전성’으로 정체성 찾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자, 이번에는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과제로 다가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작업은 지금과 같은추상회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정체성’ 찾기가 그림의 주제로 급부상하면서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변화가 수반됐다. 그의 추상은 ‘뜯기’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됐다. “추상적인 개념인 불완전성을 시각화하기에 추상회화가 제격이었어요.”

그의 뜯기는 다섯 겹의 한지로 제작된 오합지 위에 다양한 색들을 겹친 후에 타투 바늘로 한올 한 올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뜯어낸 표면은 보푸라기 같은 입체감으로 몽실 거린다. “타투는 오합지를 뜯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뜯기가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어서 선택했다면, 오합지도 그 연장선에서 채택됐다. 자신을 규정하는 변하지 않는 본질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로까지 지평을 넓혀갔고, 그때 태몽이었던 ‘조개’를 떠올리게 됐다. 자신의 태몽이 자신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고 조개에 주목한 것.

그는 태몽 속 조개를 작업에서 물로 환원해갔다. 조개가 곧 물인 것이다. 물이야말로 조개의삶의 터전으로 인식됐고, 내친김에 작가 자신의 근원이라는 자각까지 휘몰아갔다. 오합지의선택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에서 힌트를 얻었다.

최근 개막한 갤러리 팔조 정병현 개인전 ‘a. INCLINATION’에 그의 전매특허인 타투로 뜯어구현한 신작들이 걸렸다. 신작들에서 새로운 조형성이 주는 팽팽한 균형감이 전시장을 감싸돌고 있다. 드러냄과 숨김의 교차로 획득한 균형이다. 그는 한지 위에 색을 겹친 후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뜯어낸 면과 뜯어내지 않은 면을 동시에 수렴하며 균형감을 찾아간다.

그가 감춤과 드러남으로 표현된 자신의 미학적 실험에 대해 “실존적 갈등의 해소이자 자기해방의 탈출구”라고 설명했다. “10여 년 간 화면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불완정성에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해소되었어요. 그러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불완전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드러남과 감춤의 이치를 발견하게 됐어요.”

신작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변화는 기학적 조형이다. 뜯어서 드러낸 면과 뜯지 않아 밀려난 면들 위에 기울어진 원뿔이나 원, 불규칙적인 도형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작가 개인을다루던 개체 중심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사유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만난 조형성이다.

신작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변화는 기학적 조형이다. 뜯어서 드러낸 면과 뜯지 않아 밀려난 면들 위에 기울어진 원뿔이나 원, 불규칙적인 도형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작가 개인을다루던 개체 중심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사유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만난 조형성이다.

그가 화면 속 기학적 조형에 대해 “단순함과 복잡함의 조율로 드러난 이성과 감정의 균형상태”라고 했다.

“기울어진 기하학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은유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균형을 잡고 곳곳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에 대한 표출이죠.”

전시장 벽면에 걸린 소품은 향후 작업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다. 색을 겹쳐 올린 후에 화면을 두 개로 나눈 후 한 면은 뜯어내고, 나머지 한 면은 색칠한 상태 그대로 유지한 작품이다. 일명 색면작업이다. 숨김과 감춤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얻은 두 개의 색면에서 순수함과 고요함이 교차한다. 그가 “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간 작품”이라고 언급했다.

숨김과 드러냄으로 완성한 두 개의 색면에는 예술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것은 회화의 본질인 색과 선과 면, 인간의 본질인 불완전성이다. “지금까지 작업 해왔던 과정들 속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제는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해도 감상자들이 충분히 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질을 향한 열정은 또 다른 재료인 물감에도 투영된다. 그는 아크릴이나 유화 물감의 재료인 안료를 물감 대용으로 사용한다. 순수한 본질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혼합재료보다 더 본질적인 재료인 안료가 제격이라고 판단해 두려움 없이 안료를 선택했다.

“안료를 쓰면 더 순수하면서도 깊이 있는 화면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재료가 주는 힘이자 제가 추구하는 본질의 세계가 가진 파워죠.”

대개의 경우 작가와 그림은 일치한다. 그림이 곧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때 재료와 기법은 표현을 위한 매개체여서, 신중을 신중을 기한다. 자신의 내면상태에 가장 근접하는 재료와 기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정병현은 자신의 주제의식인 ‘정체성’ 구현을 위해 한지와 뜯기를 기꺼이 수용했다.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적합한 재료와 새로운 작업방식을 모색하도록 이끌었고, 계속된 열정은 작업의 진화를 견인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자신에 대한 수용’이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 “혼자의 힘으로 나를 찾아가고 표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단축시켜 준 것이 멘토들의 조언이었어요. 평론가나 갤러리스트의 조언을 적극수용하며 작업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뜯기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타투를 미술의 작업 방식으로 차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는 작업 방식에서 이미 대학 재학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린 태도를 취해왔고, 타투 역시 그 연장선으로 다가왔다. 미술과 무관한 재료나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작업방식에 일찍부터 열린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대학 재학 시절부터 이미 재료나 기법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번 신작에선 색 쓰는 방식에서 칠하기에서 분사로의 변화를 시도하며, 예술적인확장에 한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타투의 차용이라는 대단히 독자적인 방식은 물성이나 재료에 대한 실험을 거듭하는 연장선에서 만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칠하기와 분사의 혼용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숨김과 드러냄으로 그가 획득하고자 하는 궁극의 미학은 무엇일까? 그가 ‘다채로움’이라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뜯기에 의해 구현된 보푸라기들의 입체적인 형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질감과 형상을 선사하고, 그 상태에서 뿔어져 나오는 기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뜯기를 통해 내면의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질감과 형상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양한 형상들에서 감상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 냅니다.” 전시는 8월 5일까지.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저작권자©대구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인옥